

결핵, 아직도 전염되고 있다

젊은 여대생이 서너 달 전부터 기침과 가래가 나오고 피곤해서 감기약을 먹었지만 잘 낫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와 병원을 찾게 됐다. 방사선 촬영과 가래검사 결과 폐결핵으로 판명되었다. 이 여대생은 깜짝 놀라며 “아니 우리나라에 아직도 결핵이 있어요?”라고 반문을 하며 믿지 않는 표정이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결핵에 대해 잊어가고 있다. 연말을 맞아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 씬을 사라고 하면 “아직 우리나라에 결핵이 있느냐”고 되묻는다.

문제는 폐결핵이 전염병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공기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조심한다고 하여 예방할 수가 없다. 결핵환자가 치료를 받기 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결핵을 감염시켰을까 하는 상상은 생각조차 끔찍하다. 그러나 우리 곁에서 결핵환자들이 같이 생활하고 결핵균을 전염시키고 있는 상황은 엄연한 현실이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결핵이 없어졌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결핵을 관리하는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결핵에 대해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크리스마스 씬은 여전히 필요하다.

- (권오정,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조선일보 '의료칼럼' 기사 중에서-

결핵환자관리 '구멍'

과거에는 결핵환자 다수가 지역 보건소를 통해 최초진단과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최근에는 결핵환자의 70% 이상이 보건소가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들 민간병원의 신고율은 50%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법정전염병인 결핵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보건소에 환자발생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 매일경제 2006년 1월 9일자 기사 중에서-

WHO, 北 결핵퇴치에 110만 달러 지원 계획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북한의 결핵퇴치사업을 위해 11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길 소렌슨 WHO 평양사무소 대표는 1월 12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WHO가 지원하는 65만 달러는 결핵약을 구입하는데 쓰이고 캐나다 국제개발청이 지원하는 45만 달러는 실험실과 장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결핵실태와 관련, "북한은 결핵발병률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북한 주민 10만 명당 210명이 결핵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2006년 1월 12 일자 기사 중에서 -

'2006년, 결핵퇴치의 해' 로 삼자

결핵을 흔히 후진국병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결핵환자가 많다고 하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서 발표한 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 해 3,000명 정도가 결핵으로 사망한다. 더욱 큰 문제점은 결핵환자 중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20~30대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결핵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사회활동이 많은 젊은이들의 접촉빈도가 높는데 따른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핵퇴치를 위한 크리스마스 씬 성금 모금운동이 해마다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그 실적이 해가 갈수록 국민들의 무관심속에 저조한 실정이다. 지금도 모금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 모금운동에 동참했으면 한다.

- 국정브리핑 국정넷포터 박동현 님의 기사 중에서 -

※ 연말연시 매체에 보도된 결핵관련 기사를 주요 내용만 발췌해 정리하였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하여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